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비전 실현 속도

민선8기3주년

경제·복지·교육·관광 전 분야 고른 성과
신도시·농촌 균형 발전...주거·복지 확충
‘워커힐 시티 무안’ 브랜드로 고품격 대응

무안군이 민선 8기 3년간 경제·복지·교육·관광 등 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전남의 수도, 플랫폼 무안’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남악·오룡 신도시 정주 여건 확충,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및 도



리포 관광단지 조성 등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을 현실화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총 365억원의 무안형 재난지원금과 민생 회복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했으며, 남악·오룡·청계 등 주요 지역의 골목형 상점가 조성, 무안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전국 최대 생활도자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도자산업 복합특구 지정과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에 성공했다.

도농균형발전도 본격 추진 중이다. 신도시에는 복합문화센터, 순환버스, 도시숲 등 정주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도시재생,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엄마학교 ‘마마학당’은 전국 최초로 시행돼 도농 복지 균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도리포 리조트 개발사업 본격화, 무안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목우암 목조불상 보물 지정 등 문화자산 가치를 높였으며, 갯벌 탐방다리 개통과 함께 해양관광 거점 조성에도 나섰다. 체육 인프라도 강화돼 파크골프장 확대, 다목적체육관 신축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맛있는무안’ 브랜드 및 온라인몰 운영으로 1년 만에 매출 11억원을 기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인력난과 복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한 항만 정비도 매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선 신축 이전한 보건소와 통합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생활 편의성을 높였으며 출생기본수당, 입학축하금, 농어촌버스 청소년 요금 인하 등 실질적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오룡고 설립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미래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워커힐 시티 무안’ 프로젝트는 전국 대표 건강도시 브랜드로 부상하며,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을 통해 고품격 대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해 군 단위 인구증가를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인구 9만3천명을 돌파했고, 지방자치경쟁력지수 전국 5위,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등 대의 성과도 뚜렷하다. 김산(사진)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무안의 더 큰 도약과 행복한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한빛원전, ‘짜통 베어링’ 사용...축소·은폐 논란

SKF 모조품 630개 중 200여개 설치
“전량 보관” 허위...책임 공방 불가피

한빛원전에 모조품 베어링이 납품된 가운데 이를 축소·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한빛원자력 안전협의회에 따르면 A사는 2023년 3월28일부터 5월18일까지 한빛원전에 60개 품목 총 630개의 모조 베어링을 납품했다. <사진> 한빛원전은 2023년 스웨덴의 SKF 제품을 요청했지만, A사는 SKF 제품 박스를 복사한 모조품 베어링을 납품했다. 해당 제품은 한빛원전의 인수검사와 한수원 중앙연구원(CGID)의 Q등급 등급 과정에서 정품으로 통과됐다. A사가 납품한 630개 중 자체창고에 남은 재



고는 167개였으며, CGID 파괴시험에 13개, 1발 전소에 289개, 2발 전소에 130개, 3발 전소에 28개, 고리원전에 3개 등 총 447개가 출고됐다. 이 중 198개는 기기에 설치됐다가 주기 교체로 폐기됐고, 현재 설치됐거나 설치 중인 베어링은 197개다. 때문에 한빛원전의 ‘모조품 베어링을 전량 창고에 보관 중이다’, “314개 중 92개가 모조품이다”라는 주장은 허위로 밝혀졌다. /광광=김동규 기자

이에 대해 한빛원전은 “기존에는 CGID 승급 제품만을 기준으로 수량을 보고했지만, 안전협의회에 요구에 따라 전량을 집계한 결과 기존 자료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 “설치된 베어링은 운전원과 정비원이 현장에서 점검·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보관 자재는 격리 조치하고 기 설치된 베어링의 교체를 위한 정비계획과 일정을 수립했으며, 남은 재고에 대해서도 순정품 여부를 추가로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전동기 베어링 온도가 경보치 범위(90도 이하) 내에서 4도에서 5도로 상승, 원인 조사 과정에서 모조 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전 원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됐고, A사가 한빛원전에 모조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광광=김동규 기자



안교진 초대 해양경찰청장(앞줄 2명)이 지난 2일 목포시 노을공원 내 고(故) 박경조 흉상에 참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장, 목포서 새 출발...해양안보 거점 ‘도약’

안교진 초대 정비창장 부임
“완벽한 함정 정비 지원에 최선을”

해양경찰청장이 목포에서 새롭게 확대 개편돼 해양안보 핵심 거점으로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3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안교진(68) 초대 해양경찰청장(서기관)이 부임했다.

안 초대 창장은 공식 업무에 앞서 목포시 노을공원 내 고(故) 박경조 흉상에 참배하며 경찰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했다. 대구 출신인 안 창장은 1990년 영남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해군 장교로 임용돼 2001년 해군 준장으로 퇴역했다.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해양경찰청장(부산)을 역임했다. 해양경찰청장부의 확대 개편은 해양경찰의

함정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경찰 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안교진 초대 정비창장은 “해양경찰청장부의 새로운 시작을 목포에서 알려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해양경찰의 발전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 안전을 위한 완벽한 함정 정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목포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포=정해선 기자

“공유재산안·빛가람 공원장 절차 미준수·예산 불일치”

나주시의회 에너지관광특 감사결과 보고
핵심 항목 기재 의무화 등 사업 재검토 촉구

나주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및 빛가람 공원장 사업에 대한 감사를 추진한 결과 절차적 미준수와 예산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 3일 나주시의회에 따르면 에너지관광위원회는 최근 제27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빛가람 호수공원장 조성사업(1단계)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질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마한별자리 조성 ▲드들강 유원지 캠퍼링 ▲죽설현 생태원림 등 3건의 편입토지 매입 사업이 포함됐으나, 사업 목적·재원 계획·감정평가 기준 등 핵심 정보가 누락된 취약본 형태로 의회

에 제출됐다. 이에 위원회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공공성을 검토한 후 3건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계획안 작성의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모든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해 ▲법령과 지침에 부합하는 형식 ▲핵심 항목의 명확한 기재 의무화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관광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빛가람 호수공원장 조성사업(1단계)’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감사 결과를 공식 보고했다. 이 사업은 총 12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지만, 당초 계획보다 무대 면적이 약 73% 축소된 변경안이 일방적으로 승인됐다. 문제는 이와 같은 분절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생

략됐고, 예산 조정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결함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기존 야외공연장의 리모델링 및 재활용 대안 ▲경관 훼손과 소음 민원 예방을 위한 재설계 필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보완 등을 제시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식 촉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현재 호수공원이 공연장·체험시설·생태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이를 총괄 관리하는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의 인력과 조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인력 충원과 기능별 조직 재편의 시급성을 함께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 수용성은 공공 정책의 기본”이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일 수록 더욱 정밀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 나주시는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김영수 기자

강상구 제22대 나주 부시장 취임

‘에너지수도, 영산강 르네상스’ 전력투구

나주시가 강상구(사진) 제22대 부시장을 새로 맞이하며 ‘에너지 수도 나주’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시정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상구 전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이 제22대 나주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신임 강 부시장은 담양군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예산편성과 정책조정부서에서 전남의 심부름꾼을 자임하며 굵은일을 도맡아 해온 일화로 유명하다. 또한 해남군 부군수, 전남도청 기업도시담당관, 에너지산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행정 전문가로 손꼽힌다. 특히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재직하며 3년간 에너지 수도 나주와 관련된 핵심 정책을 이끌며 지역 현안과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고 2017년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으로 빛가람페스티벌과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협의회 등도 이끈 바 있다. 강 부시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업무에 즉시 돌입해 복합혁신센터 및 생활SOC복합센터,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예정지 등 주요 현장 방문



을 통해 시급한 현안 사업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전기 주권과 에너지 패권 시대, 나주가 중심에 서야 한다”며 “윤병태 시장의 시정 철학 아래 12만 시민과 함께 ‘영산강 르네상스’,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실현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와 머리를 맞대는 통합행정, 먼저 준비하는 선제적 행정, 시민을 최우선에 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강 부시장의 풍부한 행정 경험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나주의 핵심 시책인 에너지산업 육성,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등 주요 현안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완도, 道 최초 ‘스마트 우편함’ 도입

민원서류 분실 방지·개폐 이력 기록 등

완도군은 3일 “민원서류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전남도 최초로 ‘스마트 우편함’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스마트 우편함은 개인정보가 담긴 민원서류나 일반 우편물을 보다 안전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폐 방식을 열쇠가 아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전환해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우편함은 사전 등록된 담당자만 열 수 있으며, 개폐 이력이 자동으로 기록돼 무단 열람 방지 및 문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스마트 우편함 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차단 등 민원인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의 효율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 일제 정비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위치 확인

해남군은 3일 “오는 9월까지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100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역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해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등산로·해안가에서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주소정보누리집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 ‘지도로 찾기’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 메뉴에서 주변 국가지점번호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해남군은 두륜산, 관두산·고천암 등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해 관리 하고 있다. 올해는 금강산 및 남파랑길, 달마고도 등의 등산로 100개소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 지사에 의뢰해 훼손되거나 사라진 경우, 표기 오류 등에 대해 즉각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파악과 구조활동을 위한 국민의 안전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활동을 통해 재난·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 도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